

# 순천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법적 정당성 충분”

## 허석 전 시장 입지 관련 질의 답변 “시민 사랑받는 공공자원화로 건립”

순천시가 지난 2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들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허석 전 순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하면서 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관규 시장은 전직 시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한 대신 시 담당부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속히 답변을 전달해 자칫 전향적 시장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에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이유와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

지 BTO(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했는 지 등을 질의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당시 ‘시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권고받아 입지 평가후보지 4개소 발표(2021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2021년 8월)를 진행했지만 환경·월등면 주민들의 반발로 허 전 시장 주재로 간담회(2021년 11월)를 가진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불철 안개 조사를 추가할 것과 행정절차 중지를 약속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생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2022년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도래하면서 민선 7기 입지 선정 절차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다시 한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선정 및 환경부·생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연향들 일원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민간투자) 방식인지에 대해 아직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 우려 문제는 환경부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지하 소각시설은 하남유니온파크가 유일하지만 신규(증설) 시설을 계획

하고 있는 서울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는 현재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다. 시는 지하화로 인해 우려되는 근로자 안전문제는 안전 및 방재 설비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 쾌적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다.

입지선정 과정 주민의견 수렴은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선견지 견학, 시민 홍보(카드뉴스, SNS, 팜플렛 등),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허 시장이 진행한 사업을 후임이 백지화 한 건 아니고 민선 7기 당시 시설 입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시민의 사랑받는 공공자원화시설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친환경 법씨 온탕소독장 운영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곡성군이 고품질 쌀 생산의 필수 과정인 법씨 온탕소독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와 10개 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친환경 법씨 온탕소독장’을 설치하고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법씨 온탕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민들은 탈망기 또는 소금물 정선 등을 통해 충실한 법씨를 고른 뒤 건조시켜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 종자를 65도 물에 7분간 담근 후 건조내 찬물에 2-30분간 충분히 식히면 완료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씨 적정량(10kg 이하)을 그물망에 담아 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시간 동안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 후 추가로 석회유황(22%액)을 50배로 희석해 24시간 침지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이상 높일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씨 온탕소독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쌀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인근에 소독장을 개설했다”며 “온탕 소독을 통해 쌀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광양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귀농귀촌 영농교육

광양시가 지난 4일 제10기 기초 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반 수강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해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구교육에는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181가지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시정 소개와 함께 광양시 공식SNS 채널, 보조금24, 정부24 등 유익한 채널을 소개했다.

앞서 광양시는 ‘광양시에 살면 모든 세대 혜택 가득, 2024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책자 파일도 게시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허브도시 도약” 프랑스 벤치마킹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벤치마킹 추진단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를 찾았다. 공 군수가 툴루즈 우주박물관을 방문해 야외 전시 공간을 시찰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광양시 “전통시장서 소자본 창업 기회 잡으세요”

광양시가 소자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빈점포 입점 희망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점포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마친 광양매일시장 신규 점포 9개소와 광양5일시장 2개소, 옥곡5일시장 3개소, 중마시장 1개소 등 총 15개소이다.

시는 그동안 빈점포 모집업종에 대한 시장별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점포별 업종을 선정했으며, 지난 4일 광양시 공설시장 사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모집업종 및 자격요건, 심사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광양매일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아트리움을 조성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1층은 봉어빵 및 호떡, 토스트, 치킨 등 먹거리 업종을 추가하고 2층은 커피숍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업종으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세대별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의 이중수혜 방지와 다양한 세대의 입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광양시 소재 공설시장 기입점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광양시 투자경제과 시장관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장별 점포 현황 및 모집업종,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2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시장 사용허가 심사 배점표에 따라 5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평가 점수와 2차 심사위원의 심층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입점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4월까지 입점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뇌출혈 베트남 환자 귀국 지원 순천시·기관·단체 성금 전달

순천시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했으나 의식이 없는 베트남 환자를 위해 순천시와 각 기관·단체가 협력해 1706만원의 성금을 연계모금·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환자는 지난 2월20일 쓰러진 후 4월3일 출국하기까지 병원비 및 베트남 이송비용으로 총 5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성기물로병원에서는 자체 성금모금과 감면을 통해 약 3500만원을 후원했으며, 순천시는 △순천·광양 베트남 커뮤니티(순천·광양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모임) 656만원 △이랜드복지재단 500만원 △순천제일교회 300만원 △순천시가족센터 양지역 통역사 250만원 등 각 기관·단체와 협력해 총 1706만원을 연계모금 지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전남농기원, 내년 농촌지도사업 국비 확보 총력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목포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획·예산 분야 업무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시군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신청 지침 시달에 따른 사업설명, 농촌진흥청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ASTIS 시스템 활용 교육, 중앙평가에 대비한 지표설명과 시군센터 현안 사업 의견 수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방향은 △혁신전략 추진 방안 및 다양한 주제가 참여하는 기술보급체계 마련 △ASTIS 현장 활용을 확대해 지도사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농촌지도기반 지원 내실화

및 현장수요 반영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로 공모 사업을 포함한 신기술보급사업 등 10개 분야 260여 개 사업이 신청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말까지 ASTIS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고 내년 신규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관수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국비·지방비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군과 협조체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광양시, 8억4800만원 투입

광양시는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총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의(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 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지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